KGMP

전문의약품

만성B형간염치료제

테노포버정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Tenofover Tab.

분류번호 : 629

저희 메디카코리아는 인간중심의 기업, 함께 나눌 줄 아는 기업이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운 삶을 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의약품 하나하나에는 생명의 존엄성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메디카코리아 임직원들의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성분 · 함량] 1정 중

- 유효성분 :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별규) ····· 300mg(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로서 245mg)
- 첨가제(동물유래) : 은당수화물(소, 우유)
- 첨가제(타르색소) : 첨색2호, 황색호료
- 기타 첨가제 : 미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르산마그네슘, 오파드라이Ⅱ 파란색(32K8050003), 전호화전분, 크로스카멜로오스나트륨

[성 상]
연한 청색의 이푼드 모양의 필름코팅정

[효능 · 효과]
1. HIV-1 감염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에서 HIV-1감염의 치료를 위해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와 병용투여한다.
이 약은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함유 복합제제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
2. 만성B형간염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만성B형간염을 치료한다.
(만성B형간염 치료를 위해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일반적 주의를 고려할 것)

[용법 · 용량]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35kg 이상)
HIV-1 또는 만성B형간염 치료를 위해 1일 1회 1정(300mg) 복용한다. 음식물의 섭취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
만성B형간염의 치료에서 최적의 치료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35kg 미만의 소아 만성B형간염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2. 신장애 환자
이 약을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약물 노출이 모의하게 증가했다. 따라서 기저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을 참고하여 이 약의 복용 간격을 조절해야 한다. 다른 대안 치료가 없는 HIV-1 감염 환자의 경우 표1을 참고하여 이 약의 복용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복용 간격 조절 시험은 혈액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장병 환자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수준의 신장애가 있고 HIV나 HBV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의 1회 복용량 약동학 데이터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복용 간격 조절 시험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중등도 또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에 대해 임상적으로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의 경우 신장기능 및 치료에 대한 임상적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해야 한다(경고3참조).
경증신장애 환자의 경우 복용 간격을 조절할 필요가 없고(크레아티닌 청소율 50-80mL/min) 제한된 크레아티닌 청소율과 혈청 인산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경고3참조).

표 1. 크레아티닌 청소율에 따른 복용 간격 조절

	크레아티닌 청소율(mL/min)[a]			혈액 투석 환자
	≥50	30-49	10-29	
권장되는 300mg 복용 간격	24시간마다	48시간마다	72-96시간마다	7일마다 또는 투석 약 12시간 후[b]

a. 이상체지방)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b. 일반적으로 약일에 약 4시간 동안의 3회 혈액 투석으로 가정하여 일주일에 한번 투여한다. 이 약은 투석이 끝난 후 투약해야 한다.

테노포비르의 약동학은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10mL/min 미만으로 혈액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에서 평가된 바가 없으므로 이 환자에 대한 투여지침은 없다. 신장애가 있는 소아 환자에 대한 용량 권장을 위한 데이터는 없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유산증/지방증을 동반한 중증의 간비대증
이 약과 구성성분인 테노포비르를 포함한 뉴클레오시드 유사체를 기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유산증 및 지방증을 동반한 중증의 간비대증이 보고되었다. 이들 사례 대부분은 여성이거나 나이든다. 비만 및 장기간의 뉴클레오시드 노출이 위험요소일 수 있다. 간질환에 대해 알려진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에게 뉴클레오시드 유사제를 투여할 경우 주 의해야 한다. 일반적 위험요소가 없었던 환자에서도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 유산증 또는 두드러진 간독성간에 따른 이미노기전이효소의 상승이 없이 나타나는 간비대 및 지방증 포함을 의심할 만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 이상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2) 치료 중단 후 간염 악화
이 약을 포함한 항-HBV 치료의 중단은 간염의 중증 급성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약의 투약을 중단한 HBV 감염 환자는 수개월 이상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 추적검사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되어야 한다. 적합할 경우 B형 간염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3) 신장애 발생 또는 악화
테노포비르는 원칙적으로 신장에서 배설된다.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급성 신부전증 및 파국니 증후군(중증의 저인산혈증을 동반한 신세뇨관 손상을 포함한 신장애)이 보고되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및 이후의 치료를 받는 동안 임상적으로 적절하게 또든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계산하는 것이 권장된다. 과거 아데포버어 제제를 복용하던 중 신장애를 겪었던 환자를 비롯한 신장애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개선된 크레아티닌 청소율과 혈청 인산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50mL/min 미만인 모든 환자에서는 테노포비르의 복용 간격을 조절하고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다. 이 복용 지침을 사용하여 투약한 신장애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신장 독성의 잠재적 위험 대비 이 약 치료의 장재적 이득을 평가해야 한다.
신독성이 있는 약물을 함께 투여하거나 최근에 투여한 경우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4) 다른 약과의 병용투여
이 약은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이 포함된 복합제(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빈/에피비린의 복합제 또는 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빈/엘비테그라비르/코비시스타트 복합제)와 함께 투여하지 않는다.
5) HIV-1과 HBV에 동시에 감염된 환자
HIV-1 내성 발생의 위험 때문에 이 약은 HIV-1과 HBV에 동시 감염된 환자에게 적절한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요법의 일환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하기 전 모든 HBV감염환자에게 HIV-1 항체 검사를 권해한 한다. 또한 모든 HIV-1감염환자가 이약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만성B형간염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6) 골밀도 감소
골절의 병력을 가지고 있거나 골감소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골밀도(BMD)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비록 칼슘 및 비타민 D 보조제의 효과는 연구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보조제는 모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골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진찰을 받아야 한다. 시험 903 에서 144주간 테노포비르 치료를 받은 HIV 감염 환자에게서 초기보다 BMD가 감소되는 현상이 모두 및 관찰에서 나타났다. 144주차 환자의 요추 BMD 평균감소율은 '스타부단+라미부딘+에피비린제(-1.0%±4.6) 투여군' 보다 '테노포비르+라미부딘+에피비린제(-2.2%±3.9) 투여군' 이 더 컸다. 관찰에서 BMD의 변화는 두 치료그룹에서 바슷하게 나타났다('테노포비르 그룹에서 -2.8%±3.5' vs. '스타부단 그룹에서 -2.4%±4.5'). 두 그룹에서 BMD 감소는 대부분 초기 24-48주 사이에 일어났으며 이러한 감소는 144주까지 유지되었다. 척추에서 BMD가 5% 이상 감소한 환자 또는 골굴에서 BMD가 7% 이상 감소한 환자는 테노포비르 그룹에서 28%, 스타부단 그룹에서 21%였다. 임상적으로 관련된 골절(충격 및 발가락 제외)이 테노포비르 그룹에서는 4명, 스타부단 그룹에서는 6명에서 보고되었다. 또한 스타부단 그룹이 비해 테노포비르 그룹에서, 빠른 골 교체를 암시하는 골 대사의 생화학 표지혈청 골 특이성 알칼리 포스파타제(bone specific alkaline phosphatase), 혈청 오스테오칼신, 혈청 I-텔로펩타이드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혈청 부갑상선 호르몬 농도 및 1,25 비타민D 농도 역시 테노포비르 그룹에서 더 높았다. 골 특이성 알칼리 포스파타제제를 제외하고 이러한 변화는 정상 범위 안에 들었다. 테노포비르의 사용과 관련하여 골절을 유발할 수 있고 근위 신장 세뇨관증후군과 관련된 골연화증 사례가 보고되었다.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아 HIV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시험 321, N=87)에서 48주 후 BMD 증가율은 위약 치료 그룹에 비해 테노포비르 치료 그룹이 낮았다. 48주 후 척추 BMD가 유의하게(4% 초과) 감소를 보인 환자는 테노포비르 치료 그룹에서 6명, 위약 치료 그룹에서 1명이었다. 96주 간 테노포비르 치료를 받은 26명의 환자에서 BMD Z-score의 기저치 대비 변화량은 척추 -0.341, 전신 -0.458이었다. 뼈의 성장(소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 교체에 대한 표지는 상한에서만 미한기지로 테노포비르 치료를 받은 소아 환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 HIV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시험 115, N=106)에서 72주 간의 테노포비르 및 위약 치료 후 두 군 모두 청소년기에 예상되는 대로 척추 BMD는 증가하였다. 72주 후 척추 및 전신 BMD의 기저치 대비 증가율은 테노포비르 치료 환자각 +5% 및 +3%가 위약 치료 환자각 +6% 및 +5%에 비해 낮았다. 72주 후 척추 BMD가 유의하게(4% 초과 감소를 보인 환자는 테노포비르 그룹에서 3명, 위약 그룹에서 2명이었다. 기저치 평균 BMD Z-score는 테노포비르 배정 환자의 경우 척추 -0.43, 전신 -0.20, 위약 배정 환자의 경우 척추 -0.28, 전신 -0.26이었고, 72주 간 치료 후 BMD Z-score의 평균 변화량은 테노포비르 치료 환자의 경우 척추 -0.05, 전신 -0.15, 위약 치료 환자의 경우 척추 +0.07, 전신 +0.06이었다. HIV 감염 소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뼈의 성장(소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노포비르의 연관된 BMD 및 생화학적 표지의 변화가 장기적인 골 건강 및 향후 골절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7) 지방 재분포
중심 비만증, 뒷목 지방 확장(버팔로 혹), 말초 소모증, 안면 소모증, 유방 확장 및 쿠싱양을 포함한 HIV 감염 환자의 제지방 재분포/축적이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치료를 받는 환자에게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기전 및 장기적 결과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인과 관계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
8) 면역 재구성 증후군
이 약을 포함하여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서 면역 재구성 증후군이 보고되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 치료 초기 단계에서 면역계가 반응하는 환자는 무증상 또는 진행성 기회감염(소균성 결핵균 감염, 거대세포바이러스 주폐포자충 폐렴, 또는 결핵 등)에 대한 징후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면역 재구성이 진행되는 동안 자가면역질환(그레이브스병, 다발성근염, 길랑바레증후군 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발병 시기는 다양하며, 치료 시작 후 몇 달 뒤에 발생할 수도 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해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에 함유된 다른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스 불내성(galactosc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황색초원(선셋엘로우 FCF, Sunset Yellow FCF)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4. 이상반응
1) 임상 시험에서의 이상반응
임상 시험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시행되므로, 약물의 임상 시험에서 관찰되는 이상반응 비율을 다른 약물의 임상 시험에서 관찰되는 이상반응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실제로 관찰되는 비율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인 HIV-1 감염 환자에 대한 임상 시험
12,000명 이상의 환자가 테노포비르 단독 또는 기타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과 병용하여 임상시험과 확대임상시험(expanded access studies)에서 최소 28일부터 215주까지 치료를 받았다. 총 1,544명의 환자가 임상 시험에서 1일 1회 테노포비르 300mg을 투약 받았으며 11,000명 이상의 환자가 확대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약 받았다. 세 가지 대규모 대조 임상 시험에서 발진, 설사, 두통, 통증, 우울증, 무력증 및 구역질이 가장 흔한 이상반응(발병률 10% 이상, 등급 2-4)으로 확인되었다.
가. 치료 경험이 없는 HIV 감염 환자

	테노포비르+라미부딘+에파비린제	스타부딘+라미부딘+에파비린제
	N=299	N=301
전신		
두통	14%	17%
통증	13%	12%
발열	8%	7%
복통	7%	12%
요통	9%	8%
무력증	6%	7%
소화계		
설사	11%	13%
구역질	8%	9%
소화불량	4%	5%
구토	5%	9%
대사 장애		
지방이영양증[b]	1%	8%
근골격		
관절통	5%	7%
근육통	3%	5%
신경계		
우울증	11%	10%
불면증	5%	8%
현기증	3%	6%
말초 신경병증[c]	1%	5%
불안증	6%	6%
호흡계		
폐렴	5%	5%
피부 및 사지		
발진반응[d]	18%	12%

	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빈+에파비린제[b]	지도부딘/라미부딘+에피비린제
	N=257	N=254
위장 장애		
설사	9%	5%
구역질	9%	7%
구토	2%	5%
일반 장애 및 투약 부위 병태		
피로	9%	8%
감염 및 전염		
부비동염	8%	4%
생기도 감염	8%	5%
코인두염	5%	3%
신경계 장애		
두통	6%	5%
어지러움	8%	7%
정신 장애		
우울증	9%	7%
불면증	5%	7%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발진반응	7%	9%

시험 903 – 치료 관련 이상반응 : 144주 동안 테노포비르(N=299) 또는 스타부딘(N=301)을 라미부딘 및 에피비린제와의 병용하여 치료받은 600명의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서 나타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경증-중등도의 위장장애 및 현기증이었다.
경증의 이상반응(등급 1)은 두 치료제에서 비슷하게 발생했으며 현기증, 설사 및 구역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택 치료시 치료 관련 중등도 이상반응부터 중증 이상반응이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시험903(0-144주)에서 5% 이상 발생이 보고된 치료 관련 이상반응(등급 2-4)
a. 이상반응 반도는 시험간과의 상관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치료 관련 이상반응을 기반으로 한다.
b. 지방이영양증은 프로도콜에서 정의된 증후군이 아니라 시험자가 기술한 다양한 이상반응을 의미한다.
c. 말초 신경병증은 말초 신경염 및 신경병증을 포함한다.
d. 발진 반응에는 발진, 기관탈증, 반구진발진, 두드러기, 수포성 발진 및 농포성발진 등이 있다.

시험 934 – 치료와 관련된 이상반응 :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511명의 환자가 에파비린제와 테노포비르 + 엠트리시타빈의 병용요법(N=257) 또는 에파비린제와의 지도부딘/라미부딘 복합제의 병용요법(N=254)으로 치료받았다. 이 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은 치료 경험이 있거나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 시험과 일반적으로 일치했다(표 3).
표 3. 시험 934(0-144주)에서 5% 이상 발생이 보고된 치료 관련 이상반응a (등급 2-4)
a. 이상반응 반도는 시험간과의 상관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치료 관련 이상반응을 기반으로 한다.
b. 96주-144주의 시험에서 환자는 에파비린즈 + 테노포비르 + 엠트리시타빈 대신 에파비린즈 + 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빈 복합제를 투여받았다.
c. 발진 반응에는 발진, 반점성 발진, 전신성 발진 반점성 발진, 반구진성 발진, 소양증 발진 및 수포성 발진이 포함된다.

나. 치료 경험이 있는 HIV 감염 환자
치료와 관련된 이상반응 : 치료 경험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난 이상반응은 구역, 구토 및 복부통만과 같은 경증-중등도의 위장 이상반응 등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나타난 이상반응과 일반적으로 일치했다. 1% 미만의 환자가 위장관계 이상반응으로 임상 시험을 중단했다(시험 907).
시험 907의 처음 48주 동안에 발생한 중등도부터 중증의 치료와 관련된 이상반응에 대한 요약 내용은 표 4에 나와 있다.

	테노포비르	위약	테노포비르	테노포비르(위약에서 테노포비르로 교체)
	(N=368)	(N=182)	(N=368)	(N=170)
	(0-24주)	(0-24주)	(0-48주)	(24-48주)
전신				
무력증	7%	6%	11%	1%
통증	7%	7%	12%	4%
두통	5%	5%	8%	2%
복통	4%	3%	7%	6%
요통	3%	3%	4%	2%
흉통	3%	1%	3%	2%
발열	2%	2%	4%	2%
소화계				
설사	11%	10%	16%	11%
구역	8%	5%	11%	7%
구토	4%	1%	7%	5%
식욕부진	3%	2%	4%	1%
소화불량	3%	2%	4%	2%
복부통만	3%	1%	4%	1%
호흡계				
폐렴	2%	0%	3%	2%
신경계				
우울증	4%	3%	8%	4%
불면증	3%	2%	4%	4%
말초신경병증[b]	3%	3%	5%	2%
어지러움	1%	3%	3%	1%
피부 및 사지				
발진반응[c]	5%	4%	7%	1%
발한	3%	2%	3%	1%
근골격				
근육통	3%	3%	4%	1%
신진대사				
체중감소	2%	1%	4%	2%

표4. 시험 907(0-48주에서 3% 이상 발생)이 보고된 치료 관련 이상반응a(등급 2-4)

a. 이상반응 반도는 시험간과의 상관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치료 관련 이상반응을 기반으로 한다.
b. 말초 신경병증은 말초 신경염 및 신경병증을 포함한다.
c. 발진 반응에는 발진, 기관탈증, 반구진발진, 두드러기, 수포성발진 및 농포성발진 등이 있다.

[2]에 만성 소아 HIV-1 감염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57명의 HIV-1 감염 소아 환자에 대해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 병용하에 48주간 테노포비르(N=45) 또는 위약(N=42) 치료를 진행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시험 321) 결과를 근거로 이상반응 평가가 이루어졌다. 테노포비르 치료를 받은 소아 환자에서의 이상반응은 성인에 대한 임상시험에서의 알려지게 나타났다.
[2]에 만성 소아 환자에서 뼈에 대한 영향은 성인에 대한 임상시험에서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성인 만성B형간염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가. 면역 B형 간염 및 대상성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에 대한 임상 시험
치료와 관련된 이상반응 : 만성B형간염 환자에 대한 대조 임상시험에[10]2 및 [1]03에서 48주간의 이중 맹검 기간 동안 이학 치료를 받은 대상자가 더 많이 구역을 경험했대(이 약 9% vs 아데포버어 디피복실 제제 2%). 이 약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3% 이상이 보고한 기타 치료 관련 이상반응으로는 복통, 설사, 두통, 현기증, 피로, 코인두염, 요통, 피부 발진이 포함된다.
이 시험에서 최대 240주 동안 이 약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서 내약성 프로파일[0]상태의 특성 또는 심각도에서의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나. 면역 B형 간염 및 비대상성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 대상자에 대한 임상 시험
소규모의 무작위 이중 맹검, 활성 대조 시험(108)에서 CHB와 비대상성 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최대 48주 동안 이 약 또는 기타 항바이러스 약물로 치료했다. 이 약 치료를 받은 45명의 환자가 가장 자주 보고했던 치료 관련 이상반응은 복통(22%), 오심(20%), 불면증(18%), 가래증가(16%), 구토(13%), 현기증(13%), 발열(11%)이었다. 45명 환자 중 2명(4%)은 48주간의 시험 기간 중 간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사망했다. 45명의 환자 중 3명(7%)은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했다. 45명의 환자 중 45명(9%)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0.5mg/dL 증가했고(또한 범은 48주 동안 혈청 인산이 2mg/dL 미만으로 되었다). 이러한 환자 중 3명(초기에 Child-Pugh 자수가 10 이상이고, MELD 자수가 14이상이었음은 신장 손상이 악화되었다. 이 약의 비대상성 간 질환이 모두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모든(에서 이 약이 신장 손상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기는 어렵다. 45명의 대상자 중 한 명은 48주의 시험기간 중 치료 시 간염 발작을 겪었다.
[2]에 이상 소아 만성B형간염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106명의 만성B형간염 소아(12세 이상 19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72주간 테노포비르(N=52) 또는 위약(N=54) 치료를 진행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시험 GS-US-174-0115에서 이상반응 평가가 이루어졌다. 테노포비르 치료를 받은 소아 환자에서의 이상반응은 성인에 대한 임상시험에서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골밀도 평균 증가율은 테노포비르 치료군이 위약 치료군에 비해 낮았다.
2) 시판 후 조사
테노포비르가 승인된 후 사용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확인되었다. 시판 후 이상반응은 불명확한 규모의 모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항상 확실하게 발생율을 예측하거나 약물 투여에 대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않는다.
• 면역계 장애 : 알레르기 반응(혈관부종 포함 • 대사 및 영양 장애 : 유산증, 저칼륨증, 저인산혈증 • 호흡계, 흉부 및 종격 장애 : 호흡곤란
• 위장 장애 : 췌장염, 이팔리에 증가, 복통 • 간담도 장애 : 간지럼증, 간염, 간 효소 증가(기전 알반적으로 AST 및 ALT 감미 (G1) •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 발진
• 근골격계 및 결합 조직 장애 : 횡문근 융해증, 골연화증(골통으로 나타나며, 골절을 유발할 수 있음), 근육 약화, 근질환
• 신장 및 비뇨기 장애 : 급성 신부전, 신부전, 급성 세뇨관 괴사, 판코니 증후군, 근위 세뇨관증, 간질성 신염(급성이 경우 포함), 신장성 요붕증, 신부전, 크레아티닌 증가, 단백뇨, 다뇨증
• 일반 장애 및 투약 부위 병태 : 무력증
상기 나열된 이상반응에서 횡문근 융해증, 골연화증, 저칼륨증, 근육 약화, 근질환, 저인산혈증은 근위 신장 세뇨관증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7462명의 만성 B형 간염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1.66%(87/7462명, 225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 및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 빈도에 따라 아래 표에 나열하였다.

SOC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3.62%(27/7462명, 50건)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0.40%(3/7462명, 4건)
흔하지 않게 (0.1~1%미만)	소화불량(0.13%(1/7462명), 1건), 변비(0.13%(1/7462명), 1건), 위식도역류병(0.13%(1/7462명), 1건), 구토(0.13%(1/7462명), 1건), 복수(0.13%,(1/7462명), 1건), 복부팽만(0.13%(1/7462명), 1건)	–
	요로감염(0.27%(2/7462명), 2건), 위장염(0.13%(1/7462명), 1건), 대상포진(0.13%(1/7462명), 1건), 폐렴(0.13%(1/7462명), 1건), 패혈쇼크(0.13%(1/7462명), 1건)	폐렴(0.13%(1/7462명), 1건)
전신장애 및 투여부위 상태	무력증(0.13%(1/7462명), 1건), 상태악화(0.13%(1/7462명), 1건)	–
조사	ALT증가(0.40%(3/7462명), 3건), AST증가(0.40%(3/7462명), 3건)	ALT증가(0.13%(1/7462명), 1건), AST증가(0.13%(1/7462명), 1건)
신생물 양성, 악성 및 상세불명 (낭종 및 용종 포함)	간세포암종(0.94%(7/7462명), 7건), 전이성뇌종양(0.13%(1/7462명), 1건)	–
근골격계 및 결합 조직 장애	골다공증(0.27%(2/7462명), 2건), 관절통(0.13%(1/7462명), 1건), 염구리통증(0.13%(1/7462명), 1건), 척추통(0.13%(1/7462명), 1건)	골다공증(0.13%(1/7462명), 1건)
신경계 장애	감각저하(0.13%(1/7462명), 1건), 뇌경색(0.13%(1/7462명), 1건), 당뇨신경병증(0.13%(1/7462명), 1건), 대사성뇌병(0.13%(1/7462명), 1건), 착각(0.13%(1/7462명), 1건), 경련(0.13%(1/7462명), 1건)	–
긴덤도 장애	담석증(0.27%(2/7462명), 2건), 담낭질환(0.27%(2/7462명), 2건), 간경변(0.27%(2/7462명), 2건), 담낭염(0.13%(1/7462명), 1건), 알코올성간염(0.13%(1/7462명), 1건), 간낭종(0.13%(1/7462명), 1건), 간실조(0.13%(1/7462명), 1건), 간섬유화(0.13%(1/7462명), 1건)	–
손상, 중독 및 시술상 합병증	손골절(0.13%(1/7462명), 1건)	–
혈액 및 림프계 장애	빌염성호중구감소증(0.13%(1/7462명), 1건), 백혈구감소증(0.13%(1/7462명), 1건)	–
혈관 장애	심부정맥혈전증(0.13%(1/7462명), 1건)	–
시각 장애	각막변성(0.13%(1/7462명), 1건)	–
면역계 장애	이식편대숙주질환(0.13%(1/7462명), 1건)	–

또한,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빌현 빈도에 따라 다음의 표에 나열하였다.

SOC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9.12% (68/7462명, 146건)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2.01% (15/7462명, 22건)
흔하게 (1~10%미만)	간세포암종(1.07%(8/7462명), 8건)	–
흔하지 않게 (0.1~1%미만)	소화불량(0.94%(7/7462명), 7건), 변비(0.40%(3/7462명), 3건), 위궤양(0.40%(3/7462명), 3건), 위염(0.40%(3/7462명), 3건), 위식도역류병(0.40%(3/7462명), 3건), 복부불편감(0.27%(2/7462명), 2건), 복수(0.27%(2/7462명), 2건), 만성위염(0.27%(2/7462명), 2건), 명치불편(0.27%(2/7462명), 2건), 흑색변(0.27%(2/7462명), 2건), 복부팽만(0.13%(1/7462명), 1건), 충치(0.13%(1/7462명), 1건), 구강건조(0.13%(1/7462명), 1건), 십이지장궤양(0.13%(1/7462명), 2건), 치질(0.13%(1/7462명), 1건), 장상피화생(0.13%(1/7462명), 1건), 문맥고혈압성위병(0.13%(1/7462명), 1건)	소화불량(0.13%(1/7462명), 1건), 위식도역류병(0.13%(1/7462명), 1건), 복부불편감(0.13%(1/7462명), 1건), 만성위염(0.13%(1/7462명), 1건), 명치불편(0.13%(1/7462명), 1건), 구강건조(0.13%(1/7462명), 1건)
	상기도감염(0.40%(3/7462명), 3건), 요로감염(0.40%(3/7462명), 3건), 위장염(0.13%(1/7462명), 1건), 헬리코박터감염(0.13%(1/7462명), 1건), 대상포진(0.13%(1/7462명), 1건), 국소감염(0.13%(1/7462명), 1건), 치주염(0.13%(1/7462명), 1건), 폐렴(0.13%(1/7462명), 1건), 치아치수염(0.13%(1/7462명), 1건), 매혈쇼크(0.13%(1/7462명), 1건)	폐렴(0.13%(1/7462명), 1건)
전신장애 및 투여부위 상태	가슴불편함(0.13%(1/7462명), 1건), 상태악화(0.13%(1/7462명), 1건), 이상하게느낌(0.13%(1/7462명), 1건), 대운느낌(0.13%(1/7462명), 1건), 육아종성소(0.13%(1/7462명), 1건)	이상하게느낌(0.13%(1/7462명), 1건),대운느낌(0.13%(1/7462명), 1건)
조사	체중감소(0.27%(2/7462명), 2건), 알파태아단백증가(0.13%(1/7462명), 1건), 혈액알칼리포스파타아제증가(0.13%(1/7462명), 1건), 혈액콜레스테롤증가(0.13%(1/7462명), 1건), 호중구수증가(0.13%(1/7462명), 1건), 소변랑감소(0.13%(1/7462명), 1건)	체중감소(0.13%(1/7462명), 1건), 소변랑감소(0.13%(1/7462명), 1건)
신생물 양성, 악성 및 상세 불명 (낭종 및 용종 포함)	전이성뇌종양(0.13%(1/7462명), 1건), 간신생물(0.13%(1/7462명), 1건), 피부유두종(0.13%(1/7462명), 1건)	–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탈모(0.13%(1/7462명), 1건), 다형홍반(0.13%(1/7462명), 1건), 땀샘염(0.13%(1/7462명), 1건), 손발톱감입(0.13%(1/7462명), 1건), 두드러기(0.13%(1/7462명), 1건)	탈모(0.13%(1/7462명), 1건), 두드러기(0.13%(1/7462명), 1건)
근골격계 및 결합 조직 장애	골다공증(0.27%(2/7462명), 2건), 관절통(0.13%(1/7462명), 1건), 근섬유통(0.13%(1/7462명), 1건), 염구리통증(0.13%(1/7462명), 1건), 추간판탈출증(0.13%(1/7462명), 1건), 근육통(0.13%(1/7462명), 1건), 골관절염(0.13%(1/7462명), 1건), 팔다리통증(0.13%(1/7462명), 1건), 방아쇠수지(0.13%(1/7462명), 1건)	골다공증(0.13%(1/7462명), 1건)
신경계 장애	감각저하(0.27%(2/7462명), 2건), 뇌경색(0.13%(1/7462명), 1건), 치매(0.13%(1/7462명), 1건), 당뇨신경병증(0.13%(1/7462명), 1건), 대사성뇌병(0.13%(1/7462명), 1건), 착란(0.13%(1/7462명), 1건), 경련(0.13%(1/7462명), 1건)	–
긴덤도 장애	담석증(0.27%(2/7462명), 2건), 담낭질환(0.27%(2/7462명), 2건), 간경변(0.27%(2/7462명), 2건), 담낭염(0.13%(1/7462명), 1건), 알코올성간염(0.13%(1/7462명), 1건), 간낭종(0.13%(1/7462명), 1건), 간실조(0.13%(1/7462명), 1건), 간섬유화(0.13%(1/7462명), 1건)	담석증(0.13%(1/7462명), 1건), 담낭질환(0.13%(1/7462명), 1건)
손상, 중독 및 시술상 합병증	약물용량빠짐(0.13%(1/7462명), 1건), 이물질(0.13%(1/7462명), 1건), 손골절(0.13%(1/7462명), 1건), 상완골골절(0.13%(1/7462명), 1건), 인대염좌(0.13%(1/7462명), 1건)	–
정신 장애	수면장애(0.13%(1/7462명), 1건)	수면장애(0.13%(1/7462명), 1건)
신장 및 비뇨기 장애	방광기능이상(0.13%(1/7462명), 1건), 요로결석(0.13%(1/7462명), 1건), 베뇨곤란(0.13%(1/7462명), 1건), 신낭종(0.13%(1/7462명), 1건), 요관결석증(0.13%(1/7462명), 1건)	–
혈액 및 림프계 장애	빈혈(0.13%(1/7462명), 1건), 발열성호중구감소증(0.13%(1/7462명), 1건), 백혈구감소증(0.13%(1/7462명), 2건), 비장비대(0.13%(1/7462명), 1건), 혈소판감소증(0.13%(1/7462명), 1건)	혈소판감소증(0.13%(1/7462명), 1건)
대사 및 영양 장애	식욕감소(0.27%(2/7462명), 3건), 식사장애(0.27%(2/7462명), 2건)	식욕감소(0.13%(1/7462명), 2건)
호흡기, 흉부 및 종격 장애	기침(0.27%(2/7462명), 2건), 비염(0.13%(1/7462명), 1건), 생기도기침증후군(0.13%(1/7462명), 1건)	–
혈관 장애	고혈압(0.40%(3/7462명), 3건), 심부정맥혈전증(0.13%(1/7462명), 1건)	–
시각 장애	결막출혈(0.13%(1/7462명), 1건), 각막변성(0.13%(1/7462명), 1건), 안구운동장애(0.13%(1/7462명), 1건), 안구충혈(0.13%(1/7462명), 1건)	결막출혈(0.13%(1/7462명),